

광주 인구 2014년 정점 감소세

출생아 지난해 최저...유소년·청년 인구 줄고 노인 증가 전출 인구도 역전...출산장려·인구유입 통해 150만 회복

시 인구정책 연구 용역 보고서

저출산과 타 지역 전출 인구 증가 등으로 광주 인구가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출산장려와 인구 유입 정책 등을 통해 인구 150만명을 회복하기 위한 인구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경기산업연구원이 광주시의 의뢰를 받아 추진한 광주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자료를 보면 광주 인구는 2014년 147만588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145만6468명까지 떨어졌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47년에는 126만3274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출생아 수는 2012년 1만439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꾸준히 줄어 지난해

840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8년간에 절반 가까이 출생아가 준 셈이다.

2011년까지 전입 인구가 전출보다 많았으나, 2012년 이후에는 역전돼 지난해는 전출이 전입보다 3875명이 더 많았다. 전출 인구는 최근 5년 간 일자리와 직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9세의 청년 계층의 전출 비중이 높았다.

인구 비율은 유소년과 청년 인구가 줄어 들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고령화 경향을 보였다. 유소년(0~14세) 인구는 2010년 26만8670명에서 지난해 20만1037명으로, 청년(19~39세) 인구는 47만931명에서 지난해 42만2038명으로 감소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0년 13만457명에서 지난해 19만5479명으로 증가했다. 75세 이상도 2010년 4만6920명

에서 지난해 8만2829명으로 크게 늘었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유소년은 24.0%에서 19.0%로, 청년은 31.9%에서 29.0%로 감소했지만, 고령 인구는 12.4%에서 18.4%로 높아졌다.

연구원은 일자리와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체육·의료시설 확충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광주시는 이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출산 장려와 인구 유입 정책을 담은 5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저출산에 따른 생산연령 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 자치구별 인프라 불균형 등에 따라 지역 간 격차 심화 및 지역경제성장 둔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광주시 인구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일자리 확대, 청년 및 노인의 알찬 사회활동 지원 등을 위해 조직 및 제도 정비와 지원체계를 구축해 인구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최원길 기자 cki@



빈집 청년창업 채용 프로젝트 약정식 27일 광주 동구청 상황실에서 열린 '빈집 청년창업 채용 프로젝트 약정식'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예비청년창업자들이 약정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빈집이나 빈 점포를 활용, 마을과 상생할 수 있는 청년창업을 지원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광주 동구청 제공>

광주하수처리장 '녹조예방' 총인 수질 기준 강화

광주시는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하수처리시설 총인(總磷)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총인은 강물을 오염 시켜 악취나 물고기의 폐죽음을 유발하는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주된 물질로 분뇨나 하수에 다량으로 포함됐다.

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10~27%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당초 저감 목표(1.4t)를

넘는 3.2t의 저감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시는 특히 총인 처리 강화 등 수질 관리에 노력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도 받았다.

김재식 광주시 하수관리과장은 "여름철 고온 현상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총인 처리 기준 강화로 영산강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보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저탄소녹색아파트 57곳 추가

광주시는 27일 저탄소 녹색 아파트 57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광산구 광주 하남 1주공(1천884가구), 북구 오치1 영구임대(1658가구) 등 모두 4만4590가구가 대상이다.

광주시는 이들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감량과 음식물쓰레기 감축량을 평가해 많은 순으로 우수 아파트 40곳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준다.

21대 총선 당선인에 듣는다

민주당 광주 동남갑 운영덕

“각종 개혁입법 추진 주도적 역할 할 것”

열린우리당 실패 교훈 삼아야
광주 정치 존재감 회복 노력
지역발전 위한 대화채널 가동
광주형일자리 초심서 해법찾길



“정치 신인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주신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출선수범해 각종 개혁입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광주 정치의 존재감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5 총선 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 운영덕 당선인은 27일 “초심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뒤 첫 출마에서 ‘여의도행’을 확정 지은 윤 당선인은 정치 신인답지 않게 ‘겸손’부터 이야기했다.

그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당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었던 적이 있었지만, 각종 개혁입법 실패와 잦은 당내 계파 갈등 등으로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지지를 급락해 왔던 경험이 있다”며 “그때 그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21대 국회 초반기에 각종 개혁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19 탓에 어려움이 커진 지역민에 대한 걱정도 털어놓았다.

그는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세밀한 지원 대책부터, 사법 및 경제개혁 관련 각종 개혁입법 과제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동남갑 지역의 사업들과 현황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지역 현안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초선의원인 만큼 여러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많지만, 무엇보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면서 “지역 사회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각계 각층에 계신 분들과 함께 모범사업을 만들어내고 이를 지역 간 연대를 통

해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범한 시민이 생활정치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일부 정치인이 독주하는 정치가 아니라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과 함께 웃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꿈꾸고 싶다”고 말했다.

호남정치 복원의 의지도 불태웠다.

그는 “인위적으로 호남정치를 복원시키기보다는,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열망을 의정활동을 통해 차질 없이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호남정치를 복원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과거 실패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윤희리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치집단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일자리에 관한 현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노사민정 대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야심 차게 시작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관련 당사자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광주지역 8명의 당선인들이 모여 광주시와 한국노총과의 간담회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논의를 시작할 만큼,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광주형 인공지능기업’ 유치 총력

AI도시 광주만들기 3차 회의
전담조직·기업지원 책임제 도입

광주시가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기업 지원으로 투자 유치에 힘을 쏟기로 했다.

광주시는 27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기업 유치 전략, 법안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

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추진위원회와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 사업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시는 특히 기업 지원 전담 조직, 광주형 기업지원 책임제 도입 등으로 기업 유치를 집중하기로 했다.

또 첨단 3지구에 조성되는 인공지능 집적단지에서 건립되는 ‘AI 데이터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을 위

해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하고 도출된 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2월 집적단지 건축착공을 목표로 다음 달 중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하고 6월에는 특구 개발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4116억원을 투입해 첨단 3지구(4만6천200㎡)에 집적단지를 조성한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